

濟州島民具 (I)

- 보 습 -

高 光 敏*

目	次
I. 머리말	IV. '새당보습'의 구조과정
II. 제주도 풀무질의 연혁	V. 마무리
III. 제주도 보습의 풍토적 상관성	

I. 머리말

조선조 때 (1601~2) 제주에 御史로 왔던 金尙憲은, 제주 농경구 형태의 특이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밭 가는 자를 보니 농기(農器)가 매우 좁고 작아 어림에 장난감과 같았다. 물어 보니 말하기를 “흙 두어 치 속에 들어가면 다 바위와 돌이므로 이 때문에 깊이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제주도교육위원회 : 「耽羅文獻集」(1976), pp.51~52.]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부에 가서 밭갈이 모습을 봤을 때, 쟁기의 형태가 유다름을 곧 느끼게 될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쟁기 손잡이(양지머리, 양주머리)가 다르다는 점, 벧(벧)이 제주도 쟁기에서는 한마루(설치)에 얹혀졌으나 육지부의 쟁기에서는 한마루에서 뚝 떨어져 있다는 점, 제

* 濟州大學校 民俗博物館 助教

1) 제주도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양주머리)는 쟁기술(뚝클) 윗쪽에 70cm 길이의 막대가 횡목으로 따로 박아 있어 양손으로 잡게 되어 육지부 쟁기의 손잡이와 '자부지'의 구실을 함께 한다.

주도 쟁기의 술(鬮)은 지면과 약 45°의 각도를 유지하는데 반하여 육지부의 쟁기술은 지면과 거의 직각으로 세워진 느낌이 있다는 점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습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기의 가장 긴 부분인 '성에'만 해도 육지부의 것은 약 160cm,²⁾ 제주도의 것은 약 192cm로 오히려 제주도의 것이 30여 cm나 길면서도 그 보습의 크기가 매우 적은 점으로 봐서,³⁾ 金尙憲의 「南槎錄」에 '매우 좁고 작아 어련에 장난감 같다'는 農器는 바로 보습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럴 때, 제주도의 보습은 어디서 傳來된 농경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주도의 풍토적 조건에 맞게 변형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오늘날까지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를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어 온 보습의 주조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조사보고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아울러 제주도 풀무질에 관한 간단한 연혁과 제주도 보습의 풍토적 상관성까지 살펴 보고자 한다.

II. 제주도 풀무질의 연혁

제주도 풀무질에 관한 文獻記錄은 零星한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다고 전하는 풀무질의 여러 형태와 문헌에서 드물게 보이는 農耕方式의 변천과정을 비교해 볼 때, 그 풀무질의 변천과정도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 이유는 농기구와 그 주조기술의 발달과정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제주도에 전승되어 온 풀무질의 형태를 알아 보자.

제주도 풀무질의 형태는 그 규모와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전승되어 왔다. 그것은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 '손풀무'와 땅 바닥에 장방형의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도 골에 맞는 널빤지를 걸쳐 놓아 한쪽에 세 사람씩 서서 널빤지의 두 끝을 널뛰기하듯 디디면서

2) 김광언 :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 관리국(1969), p. 48 그림 참조

3) 제주도 보습의 너비는 12cm, 길이는 27cm밖에 안 되는데 반하여, 육지부에서 주로 밭을 일구는데 쓰이는 곡쟁이에 달린 보습의 크기는 그 너비가 25~35cm, 길이가 43~44cm로 나타남을 보게 된다(김광언 : 畵책, p. 32 참조).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이다.

제주도에서 손풀무는 ‘뚝뚝불미’와 ‘토불미’로 구분된다. 뚝뚝불미에서는 주로 1~2명에서 시우쇠를 달군 후 매질하여 칼이나 호미 등을 만들어 왔었고, 토불미에서는 약 20여 명이 협업으로 하는데 두 사람이 1조를 이룬 3개조가 교대해가며 바람을 일으켜 ‘뚝’ (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미리 만들어진 ‘뎡미’ (器本)에 부어넣으며 주로 솔·벗·보습 등을 주조해 왔다.

골풀무를 제주도에서는 ‘청탁불미’ (디덤불미, 발판불미)라 하는데, 그 규모와 만들어지는 제품은 토불미와 거의 동일하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과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다. 곧 여섯 사람이 1조를 이룬 2개 조가 교대로 바람을 일으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을 한다.

이처럼 세 유형으로 대별되는 풀무질의 형태를 一覽해 보면, 아래와 같다.

풀무형태 구분	청탁(디덤, 발판) 불미	토 불 미	뚝 뚝 불 미	비 고
인 원	○원대장 (1) ⁴⁾ ○알대장 (1) ○셋대장 (3) ○뚝대장 (1) ○질먹대장 (1) ○불미부는사람 (6인 1조) ○일꾼 (4) ○솔메는사람 (6)	○원대장 (1) ○알대장 (1) ○셋대장 (2) ○뚝대장 (1) ○질먹대장 (1) ○불미부는사람 (3인 1조) ○일꾼 (4) ○솔메는사람 (1)	보통 2명	솔을 주조할 경우에 한함
만들어지는 제품	솔·보습·벗	솔·보습·벗	칼·호미·낫·괘 이·요리 (따비의 날)	
작업 시기	봄	봄	사시사철	

* ()속의 숫자는 인원수를 말함.

풀무질로 만들어지는 鑄製는 그 제작과정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주

4) 여러 대장장이들이 세부적으로 맡아보는 일은 4장 1) ‘불미마담의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로 솔·보습·벗 등을 주조하는 것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器本에다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넣는 방법이고, 둘은 달궜낸 시우쇠에다 매질을 가하여 칼·호미·낫·괘이 등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거의 청탁불미와 토불미에서 이뤄지고, 후자의 것은 주로 똑딱불미에서만 이뤄진다. 그러나 보습만은 전자의 방법으로 똑딱불미에서도 주조된 적이 없지 않다. 이 때는 물론 소량의 보습을 주조할 경우로 토불미나 청탁불미에서 주조하는 방법과 거의 다를 바 없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다. 3~4명이 협업으로 도간 하나에 무쇠를 넣어 녹여야 겨우 2~3개의 보습이 만들어지는 정도인데, 일정 때 무쇠 공출을 강요하는 日本帝國主義者들의 눈을 피하여 산으로 가 숨어서 만들었다고 전한다.⁵⁾ 그 당시에는 제주도 어느 농가에서건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년밖에 쓰지 못하는 보습을 마련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전형적인 보습의 주조는 솔이나 벗과 함께 청탁불미나 토불미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의 풀무질은 가장 단순한 구조인 똑딱불미에서 토불미, 그리고 발의 힘을 이용, 그 風力으로 무쇠를 녹이는 청탁불미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50여 년 전부터는 기계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변형된 청탁불미 형태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으나 그나마 무쇠솔 대신 양은솔이, 쟁기 대신 경운기가 발을 일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풀무업은 사양길에 들어섰다 하겠다.⁶⁾

그러면 제주도에 언제 어떠한 형태의 풀무질이 존재했을까.

제주도 풀무질에 관한 기록이 전무한 현단계에서는 간간히 보이는 농경방식에 관한 기록에 의존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唐書 東夷傳 ‘儋羅’條에 의하면, 약 660년대 초(龍朔初) 제주도의 농경방식이 소개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에 ‘땅에서 五穀은 자라나 땅을 일구는데 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철치파(鐵齒杷)로 땅을 일구더라’고 소개하고

5)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의 故 金仁添(남·72)씨인 경우, 일경들의 눈을 피하여 산에 숨어서 똑딱불미 형태로 보습을 주조하다 들켜 6개월의 옥살이를 한 바 있다고 함 [안덕면 사제리, 金仁好(남·71)씨 談].

6) 金仁好(남·72)씨 답에 의하면, 德修里에서 보습이 한창 주조될 때에는 한 해에 1만 5천여 개가 생산되었다고 함.

있다.⁷⁾ 이 말은 농경 발달 과정에서 볼 때, 육지부에서는 벌써 新羅 智證王 3년(502)부터 고도농경단계인 犁耕이 시작되었지만,⁸⁾ 제주도는 육지부에 비하여 무려 160여 년이 지난 뒤까지도 호미나 괭이에 의하여 밭을 일구는 耨耕(無犁期)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의 풀무질은 660년대 이전부터 耨耕에 알맞는 딱딱불미 형태의 풀무질이 家內手工業的 형태로 곳곳에서 전승되었다고 하겠지만, 犁耕에 알맞는 보습이나 벅을 주조하기 위한 고도의 풀무 형태인 토불미나 청탁불미는 훨씬 후에야 분업 및 산업화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口傳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분업 및 산업화된 풀무질은 술·보습·벅 등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덩이와 득의 토독을 만들 수 있는 점 흙이 나오는 北濟州郡 舊左邑 德泉里의 '거멀',⁹⁾ 北濟州郡 翰京面 樂泉里, 南濟州郡 安徳面 德修里 등지에서 전승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德修里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제주도 보습의 풍토적 상관성

제주도 보습은 육지부 것들에 비하여 크기와 형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보습만이 아니라 땅을 일구는 농경구들인 괭이, 따비, 호미(굴괭이) 등에서도 나타난다.

괭이에서 볼 때, 육지부의 것들은 괭이 날의 형태와 크기가 여러 가지나,¹⁰⁾ 제주도의 것들은 그 날의 너비는 4.5cm에서부터 9.7cm까지 있고,¹¹⁾ 그 날의 형

7) 龍朔初 有僑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犬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耙土.

8) 三國史記 卷四, '智證麻立十'條, 三年春三月……………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9) 1900(光武四)년대 제주도 捧稅官 姜鳳憲이가 조사한「濟州郡各公土調查成冊」에 의하면, '德泉巨物洞鐵店稅錢四十兩云云'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늦어도 1900년 대까지는 德泉里에도 큰 '불미마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0) 김광연 : 율책, 도판 42 (괭이의 여러가지 모습) 참조.

11)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038-1, 2~41.

태는 새 부리처럼 가늘고 끝이 날카로운 것과 위와 끝이 너비가 꼭 같거나 날 부분만 둥그레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곧, 육지부의 팽이들은 날의 너비가 대체로 넓고 형태도 여러 가지나, 제주도의 것들은 날의 너비가 육지부의 것들에 비하여 좁고 형태도 단순하다.

따비만 해도 육지부인 경우에는 그 날(요리)의 모양에 따라 말굽쇠형, 코끼리 잇빨형, 주걱형이 있고,¹²⁾ 제주도인 경우 漢拏山을 중심으로 하여 동반부—특히, 北濟州郡 舊左邑과 南濟州郡 城山邑 일대—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코끼리 잇빨 모양의 ‘쌍따비’와 그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주걱형이나 말굽쇠형과 비슷한 ‘웨따비’가 있다. 그 날의 너비는 육지부의 것들이 대개 15~19cm인데 반하여, 제주도의 것은 9~11.5cm¹³⁾ 밖에 되지 않는다.

호미 또한 二 날의 형태와 크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육지부의 것들은 대부분이 호미 날의 앞이 뾰족하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보습형, 낫형, 세모형 등이 있으나, 제주도의 것은 숭배(숨배)와 날이 거의 직각을 이루면서 그 너비(보통 2cm)가 거의 비슷하여 그 너비와 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보습인 경우, 육지부의 것들은 그 형태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가 심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제주도의 것은 그 형태는 거의 일정하다.

그 크기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제주도 보습의 너비는 12cm, 길이 27cm밖에 안 되는데 반하여, 육지부에서 주로 밭을 가는 데 쓰이는 극쟁이에 달린 보습의 크기는 그 너비가 25~35cm, 길이가 43~44cm나 된다.¹⁴⁾ 그래서 육지부의 보습은 제주도 보습에 비하여 무려 배나 크다.

땅을 일구는 농경구들의 날에 있어서 그 형태는 물론 너비와 크기가 상당한 차이로 제주도의 것들이 협소한 편인데, 그 이유는 제주도의 풍토적 조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주도의 토질은 농업생산에 불리한 火山灰土로서 여기에 장기간에 걸쳐 잡목림의 낙엽이 퇴적, 비로소 농업이 가능한 黑土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농경이

12) 김광언 : 畵책, pp. 33 ~ 35.

13)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164 ~ 41, 952 ~ 41.

14) 김광언 : 畵책, p. 35 참조.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화산 활동의 결과, 지표에는 자갈 등 火山碎屑物이 널려 있다. 지하에는 조금만 파들어가도 화산의 영향으로 漢拏山의 산밭이 식어서 형성된 節理層을 이루고 있어 滲水狀態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거의 田作風土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며,¹⁵⁾ 전작풍토이면서도 그 땅을 일구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일찌기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金淨(1486~1521)은 제주도 농경 풍토에 대하여,

삼읍(三邑)이 모두 한라의 산밭이라 자갈이 많아서 평토가 절반도 되지 않아 밭가는 자는 어복(魚腹)을 도려냄과 같고……¹⁶⁾

라 했으니, 땅을 일구는 제주도의 농경구들 또한 제주의 풍토적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V. '새당보습'의 주조과정

오늘날 기계문명의 발달로 제주도에서도 쟁기 대신 경운기를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경운기로 갈기에 곤란한 節理層을 이룬 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경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며, 1~3년밖에 쓸 수 없는 보습은 다른 농경구들에 비하여 활발하게 제작되어 온 편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제주도의 보습은 그 제작 방법과 쇠 종류의 차이에 따라 '새당보습'과 '정철보습'으로 분류된다. 새당보습은 '새당', 곧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등지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주조 기법으로, 미리 만들어진 器本(덩이)에 무쇠를 녹

15) 姜景燾: '濟州道の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 「耽羅文化」創刊號 (1982),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pp. 86~95.

16) 三邑地 皆漢拏山之麓 崎嶇磽确 平土無半 畝耕者 如捶剔魚腹 似平曠而難遠望 以凹隆故也.

[제주도 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1976), p. 10.]

17) 벳(벳)인 경우는 농가에서 한번 구입하면 대물림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德修里 '불미마당'에서도 한 30여년 전부터 주조하지 않았다고들 한다.

인 쇠물을 부어 넣어 만드는 기법이고, 정철보습은 역사가 그리 오래지 못한 것으로 철공소 등지에서 정철관을 잘라 용접하여 만든 것이다. 새당보습은 정철보습에 비하면 값이 조금 비싸지만 발갈이 때 보습에 흙이 붙지 않아 땅속 깊이 잘 들어간다는 점, 보습의 옆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풀뿌리가 잘 잘라진다는 점, 쇠가 강하여 쉽게 닳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의 강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새당보습의 명맥은 오직 南濟州郡 安德里 沙溪里 金仁好(남·71)씨 소유의 한 불미마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德修里에서 새당보습이 주조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여러 차례의 간접 조사를 거친 후, 1983. 5. 3일 南濟州郡 安德里 沙溪里에 위치한 金仁好씨 소유의 ‘불미마당’에서 행해진 보습의 주조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주조과정을 순서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불미마당의 조직

보습·솔·벗 등을 대량으로 주조하는 곳을 ‘불미마당’이라고 한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불미마당은 沙溪里에 위치해 있었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조직원들은 德修里 사람들이었다. 그 까닭은 德修里에는 주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덩이를 만드는 점흙이 생산되는 관계로 일찌기 풀무질이 성행해 왔기에 이 마을 남자들이라면 거의 불미마당에서 일해 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미마당의 주인인 金仁好씨는 15일 전부더 德修里에 거주하는 여러 일꾼들에게 불미마당 조직의 일원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었는데, 새벽 6시 경에 모두 불미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이들 조직체 각자의 임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대장(1명) ; 불미마당의 주인을 ‘원대장’이라 한다. 원대장은 곧 불미마당의 자본주라고 할 수 있다. 보습불미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야 하고 보습이 잘 주조되었건 안 되었건 여러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잘 되면 발을 사고, 실패하면 발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런 집에는 풀무 神인 ‘참봉’, ‘불미참봉’, 또는 ‘도채비神’을 모시고 있다.

원대장 金仁好(남·71)씨는 2년 전에 1천여 개의 보습을 주조하고 나서 이번에 다시 1천여 개의 보습을 주조하여 제주도내 여러 철물점으로 도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② 알대장(1명) ; 알대장의 주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알뜨기’와 ‘보놓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직의 우두머리로 불미마당의 인사권은 물론 모든 일을 총지휘한다. 일단 이 조직체에 들어오면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알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작업도중 기술적인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문에 응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알대장은 풀무 기술이 완벽해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이변이 생겼을 때에는 민첩한 수완을 발휘하여야 한다.

알대장 송영화(남·62)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경영하는 불미마당에 다니면서 어깨넘어로 배워 25세 때부터 알대장으로 일해 왔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도내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솔·보습·벗 등을 주조했었는데, 北濟州郡 舊左邑 德泉里에서는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700여 개의 보습을 주조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③ 젓대장(3명) ; 독에서 녹인 쇳물을 뽑아다가 불미마당 가득 준비하게 늘어 놓은 여러 덩이에다 부어넣는 사람들이다. 이 일은 거의 마지막 작업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잡다한 일을 같이 한다.

송상호(남·51)·강원호(남·58)·윤문수(남·51)씨가 담당했다.

④ 독대장(1명) ; 독의 축조에서부터 독에 불을 피워 무쇠를 녹이기까지의 일을 맡는데, 송영민(남·59)씨가 전담했다.

⑤ 질먹대장(1명) ; 목탄이나 흑연 가루를 물에 타서 덩이 내부 표면에 칠하여 쇳물이 덩이 속으로 파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목탄을 연자마 등에서 갈아 가루(질먹)를 만드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했었지만, 요사이는 육지부에서 흑연 가루를 쉽게 구해올 수 있기 때문에 불미마당의 일원 중에서 어우러가며 칠한다.

⑥ 불미 부는 사람 ; ‘토불미’인 경우 3명이 1조가 되어 6명에서 서로 교대해가며 손으로 바람을 일으켰고, ‘청탁(디딤, 발판)불미’인 경우에는 6명

이 1조가 되어 12명이 교대해가며 발로 널뛰기하듯이 바람을 일으켰지만, 오늘날에는 기계(경운기)로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⑦ 일꾼(4명) ; 여러 대장들의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그외의 잡다한 일들을 담당한다. 문운옥(남·63)·윤용학(남·40)·김동호(남·40)·김통립(남·37)씨가 맡았다.

2) 보습의 주조과정

보습의 주조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보습의 器本인 땡이를 만드는 일, 쟁기의 술(뽕클)에 끼울 수 있도록 보습에 구멍을 내기 위하여 ‘알’을 만드는 일, 쇳물을 땡이에 부어넣어 완제품이 되기까지의 일 등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조과정에서 볼 때, 불미마당 성원들 스스로가 보습을 주조하는 일은 ‘어린이들 장난감과 같다’고 비유할 정도로 잡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주조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해 가기로 한다.

① 참봉祭

‘참봉’은 풀무 수호신인 ‘도개비神’을 일컫는 말인데,¹⁸⁾보습이나 술 등을 주조하기 전에 儒式으로 불미마당에서 치뤄진다.

제주도에서 도개비神은 하나의 신앙대상이 되어 배를 부리는 어촌에서는 船王神으로, 수렵·축산업을 하는 산촌에서는 山神日月로, 풀무질이나 도요업을 하는 곳에서는 집집마다 모시는 祖上神 내지는 部落神으로 모시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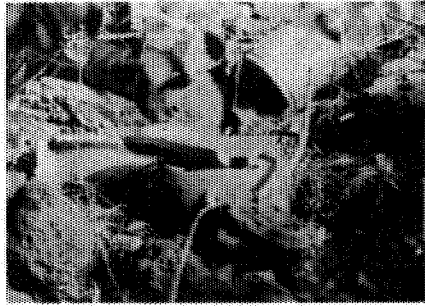
지난날 德修里 주민들을 온통 풀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거의 도개비神을 모셔 온 셈인데, 풀무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곧 도개비神은 生業 형태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말이겠다.

그러나, 원대장 金仁好씨 덕 뒤 ‘우영’에는 아직도 도개비神을 모시고 있었

18) 德修里에서는 풀무 수호신인 도개비神을 두고 ‘뒫하르방’, ‘송도채비’, ‘김창봉’, ‘김영감’, ‘김치베기’, ‘송영감’ 등으로 불리운다. (濟州大 國語國文·國語教育科: 「學術調查報告書 七輯」(1982), pp.133~134 참조.

19) 문무병: ‘濟州島 도개비堂 神話에 關한 一考’, 「研究論叢」二輯(1983), 濟州大 教育大學院 院友會, pp.30~56.

는데, 시루를 뒤엎어 반쯤 묻어 놓고 그 위에 기왓장 하나를 덮어두고 있었다(사진 1 참조). 평상시에는 名節이나 祭祀 때에 本祭가 끝나면 祭物을 조금씩 떠모은 '잡식'을 시루 속에 던져 넣는 것이 일반이라지만, 술이나 보습 등을 주조할 경우에는 불미마당에 제상을 차리고 儒式祭를 지낸다.



[사진 1]

도포에 유건을 쓴 원대장은 불미마당 창고 바닥에 자리를 깔아 놓고 대 5 그릇, 전어 5개, 야채, 과일 등을 올려 祭를 지냈다.²⁰⁾

대 5 그릇은, 도깨비神인 '참봉'을 위시하여 '독', '알', '풀무'를 수호하는 毒神, 蝸神, 風神과 원대장 집안의 諸般事를 수호해 주는 祖上神까지 합해서 다섯 神位 몫이다.

祭는 제물을 조금씩 떠 모은 것(잡식)을 창고 지붕 위로 내던지고 나서 바람을 일으킬 경운기, 독 옆과 알 굽는 곳으로 가서 조금씩 뿌려 놓는 것으로 끝났다.

② 보섭쟁이 만들

'쟁이'란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술·보습·뱃 등을 만드는 鑄型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술의 주형을 '술쟁이', 뱃의 주형을 '뱃쟁이', 보습의 주형을 '보섭쟁이'라고 한다.

술쟁이나 뱃쟁이는 한번 쇳물을 받고 나면 다시 쓸 수 없게 되지만, 보섭쟁이는 파손되지 않는 한 여러 차례 쓸 수가 있다. 금번 보습을 주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쟁이 수는 400여 개인데, 이미 창고에 보관해 둔 '묵은 쟁이' 349개론 부족할 것 같아서 50여 개의 새 쟁이를 미리 마련해 둘 계획이었다.

보섭쟁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점흙·보리 까끄라기·조리땃가지·철사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곳 불미마당에서 소요되는 점흙은 아무데서나 구해

20) 불미마당 사람들 말에 의하면, 祭物의 정도로 풀무의 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어 술을 주조할 때에는 반드시 돼지 한 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

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을 ‘큰물왓(田)’이라는 곳과 南濟州郡 大靜邑 新平里 일대에만 있다. 원대장은 지난 해에 점흙을 구입해다가 불미마당 한 모퉁이에 당분간 묵혀뒀다. 이 흙은 덩이를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모로 쓰이기 때문에 풀무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습덩이를 만드는 시기는 새봄이 가장 좋다. 겨울에는 손이 시려 작업하기가 어렵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겨 둔 흙덩이가 얼어 버리면 제대로 굳지 않아 쇠물을 부어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조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초순께 원대장은 쌓아 둔 점흙을 팽이로 일구어 적당한 둘레에 풀어 놓고 물을 치면서 발로 이기는 과정에서 간간히 보리 까끄라기를 섞어놓는데, 이는 덩이가 굳어감에 따라 凝縮되어 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보리 까끄라기가 없을 경우에는 보리 짚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보습덩이는 다시 ‘알덩이’와 ‘웃덩이’로 나뉘지고, 또 그에 알맞는 ‘알덩이틀’과 ‘웃덩이틀’이 있어²¹⁾ 이긴 흙덩이를 그 틀속에 담으며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가는데, 대개 알덩이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알덩이틀 가장자리에다 이상적인 보습의 본보기인 ‘보습뽕’²²⁾을 놓고, 그 위에다 이긴 흙덩이를 틀 가득 조심스럽게 담아간다. 반쯤 담겨졌다고 생각되면 덧가지 세 개를 세로로 나란히 놓는다. 이것을 ‘덩이서슬’이라고 하는데, 차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덩이서슬 위로 틀 가득 이긴 흙덩이를 넣은 후, 양손으로 틀 좌우를 잡고 탄탄히 다져지도록 내려쳐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웃덩이틀에도 이긴 흙덩이와 덩이서슬을 놓아 웃덩이를 만드는데, 웃덩이는 보습덩이의 뚜껑과 같은 것이므로 보습뽕을 놓아 다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지고 나서 틀의 고리를 풀어 덩이를 꺼낸 후 장작 위에 차례로 놓아가며 햇볕에 2~3일간 건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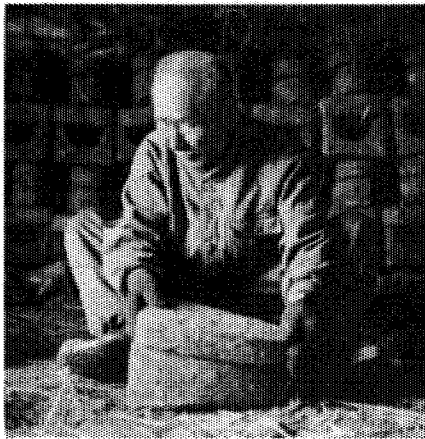
덩이 만듦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회에 걸쳐 장작불에 달구어 낼 때마다 잔손질을 정밀하게 가해야 한다. 햇볕에 어느 정도 건조시키고 나서 웃덩이와 알덩이를 30cm 간격을 두어 나란히 세워 놓은 사이에 장작을 잔

21)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352 - 46.

22)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359 - 46.

뚝 놓고 불에 잘 달군다. 그 이유는 흙덩이가 일정한 부피에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차 있을 수 없어 덩이가 달구어짐에 따라 조금은 휘어지기도 하고 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㉞ 이 (齒)마춤(사진 2 참조); 원대장은 앉아서 달구어진 알뎡이를 발 뒤꿈치로 딱 고정시키고 알뎡이 위에 얹혀진 옷뎡이만을 양손에 잡아 좌우로 이리저리 움직여 준다. 이는 옷뎡이와 알뎡이 사이에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 쇳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덩잇 이(齒)마춘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이가 마춰진 옷뎡이와 알뎡이는 쇳물이 들어갈 때까지 단 짝이 되어야지 다른 것과 짝이 바뀌져서는 안 된다. 서로 짝이 어그러져서는 자연 틈이 생겨 쇳물을 제대로 부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사람)은 놈의 지집해영(남의 계집으로 해서) 만들어도 보습은 놈의 지집해영 만들지 못한다'는 속담까지 전해질 정도이다.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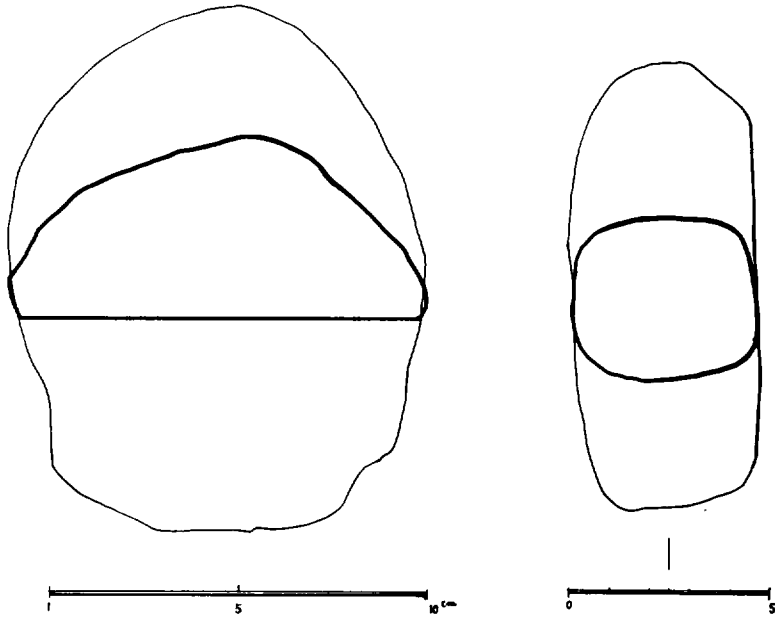


[사진 3]

㉟ 배 파기(사진 3 참조); 보습의 편편한 부분을 '민판' 또는 '알배'라하고, 알배 뒷면의 볼록한 부분을 '뒷배'라고 하는데, 쇳물이 들어가서 뒷배를 이루게 될 알뎡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을 '배 판다'고 한다. 칼날이 식칼과는 반대쪽으로 난 '배파는 칼'²³⁾로 깎아 주기도 하고, 多孔

23)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355-46.

質의 자그마한 돌맹이로 적당히 밀어 주며 매끄럽게 다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옷덩이에도 가해지는데, 이때 쓰이는 돌맹이는 둥그렇게 생긴 것이지만, 어느 한쪽은 바윗돌 같은 데서 밀어 편편하게 다듬는다. 전자를 ‘옷덩이적’, 후자를 ‘알덩이적’이라 한다(그림1 참조).



[그림 1]

㊸ 끝 빼기 ;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름철에 강우량(年平均 1,440 mm)이 높아 高溫多濕하기 때문에 한번 씨앗을 파종하여 수확해 들이기까지 보통 김을 3회에 걸쳐 맬 정도라서 「잡초와의 싸움」이 연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저절로 당숙에 묻힌 풀줄기나 뿌리가 잘라질 수 있도록 보습의 날을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이 바로 ‘끝빼기’ 또는 ‘본뜨기’인데, 보습의 끝날을 날카롭게 뾰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덩이에 ‘보습뽀’를 얹어 놓고 분필을 잡고 그 주위를 일정하게 뾰 돌린다(사진 4 참조). 그리고 나서 보습뽀를 살짝 치워두고 보



[사진 4]

면, 대개 선의 굵기가 일정치 않기 마련이다. 이것을 옷땀이적으로 밀어 주며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한다.

이렇게 해 줌으로써, 차후에 쇳물이 들어갔을 때 일정한 형태로 날카롭게 날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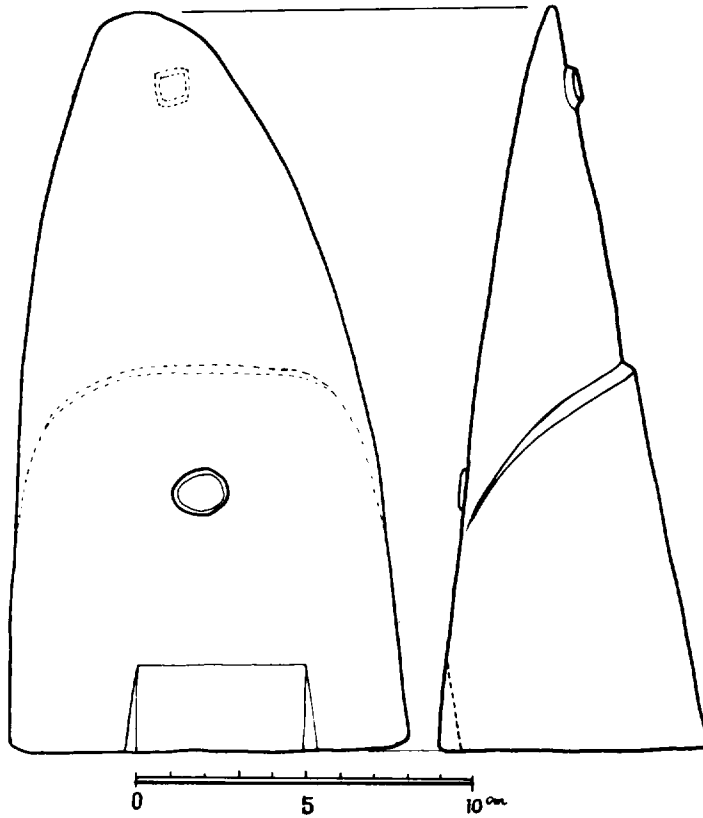
햇볕에 2~3일간 말리고 난 땀이를 다시 장작불에서 달군 후, '이마춤-배파기-끝배기'로 이어지는 잔손질은 여러 차례 반복될수록 좋지만 보통 3회에 걸쳐 실시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쇳물을 부을 수 있는 완전한鑄型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원대장 金仁好씨는 불미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349개의 묵은 땀이까지 한 달 간에 걸쳐 한 차례의 잔손질을 해 줬으며, '알'을 만들 모래 등을 구입해 줬다.

③ 알 만듦

어떤 보습이건 그것에 구멍을 내어 쟁기술(쟁글)에 제대로 끼울 수 있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보습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황톳물에 모래를 비벼 보습 구멍의 크기만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그림 2 참조)이라고 한다.

알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람이서 같이 보습을 주조하는 바로 그날에 만들어져야 한다. 알의 재료가 되는 모래는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불에 달구워져도 조금도 부피가 팽창되지 않고 보습이 완성된 후에는 응결되었던 것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성질의 모래라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러 불에 달구어 낸 점흙을 짱아서 모래를 만들어 썼지만, 오늘날에는 安德面和順里 해변에서나 山房山 모퉁이에 있는 모래에다 3분의 1 정도의 연탄재를 섞은 것을 알의 재료로 삼는다. 이것을 '알모살'이라 한다.



[그림 2]

아침 일찌기 작업이 시작되면, 잡일꾼들은 불미마당 한가운데 쌓아 둔 알모살에다 황토물을 간간이 부어가며 시멘트를 모래에다 비비듯이 삼으로 이기고 나서 곧 바로 알을 박고, 뜨는 작업에 들어간다.

㉠ 알 박음(사진 5 참조) ;이겨 놓은 모래 주위에 각 1명씩 알 박는 사람과 알 뜨는 사람이 앉고, 잡일꾼들은 차례로 창고에 쌓아 둔 텡이들을 운반해 온다. 우선 알 박는 사람 앞으로 와서 허리를 굽힌 채 텡이를 짚고 서거나 앉으면, 알 박는 사람은 알모살을 한 줌씩 집어들고 텡이 속으로 가득 쳐박는다. 이것을 '알박음'이라 하는데, 너무 힘을 가하여 알모살을 쳐 넣을 경우에 생기는 압력으로 인하여 텡이에 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진 5]



[사진 6]

㉠ 알 뜨기 (사진 6 참조) ; 잡일꾼들에 의하여 알 뜨는 사람 앞으로 알모래가 박힌 땡이가 곧 바로 옮겨지면, 알 뜨는 사람은 그림 3보다 배쯤 큰 '소갈'(알 뜨는 소갈)로 알모살을 알땡이 표면에서부터 약 2~3mm쯤 들어가게 누르고 나서 밑으로는 쇳물이 들어갈 수 있게 조금 깊이 눌러 준다. 이것을 '무십'구멍이라 하는데, 이 구멍으로 쇳물이 들어가서 보습의 앞배를 이루기 위한 손질이다. 이 일을 통틀어 '알뜨기', '알뚝'이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라 거의 알대장이 맡게 된다.

이렇게 하여 알이 박힌 400여 개의 땡이들은 불미마당 가득 줄줄이 늘어 놓는데, 약 1시간 후부터는 '뿔배깎기'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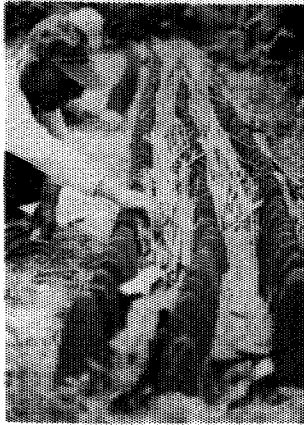
㉡ 뿔배 깎기 (사진 7 참조) ; 쇳물이 땡이 속으로 부어졌을 때 보습의 앞배를 이를 작업은 '알뜨기'에서 끝난 셈이지만, 보습의 뿔배를 이루기 위해서 알을 손보는 일이 곧 '뿔배깎기'이다.

뿔배를 깎기 위해서는 우선 알땡이에 놓여 있는 알을 1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그것을 꺼내어 곧게 세워 놓고 '소갈'(그림 3 참조) 2~3mm쯤 깎아 내린다. 이때 알 끝부분 정중앙에 바둑알만큼의 여유를 남겨두고 그림 2와 같이 깎아 내려야 하는데, 이는 땡이 속에서 알이 곳곳이 받쳐짐으로써 쇳물의 두께를 고르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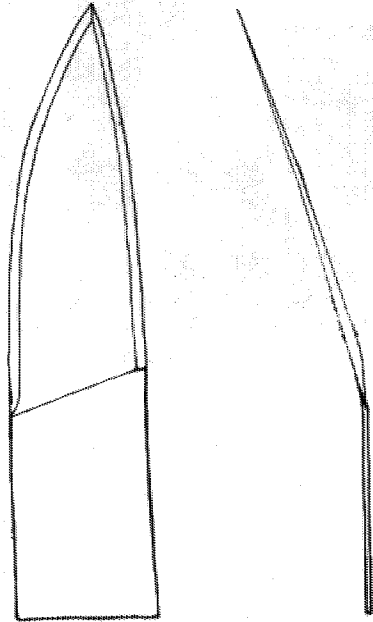
㉢ 알 굵기 (사진 8 참조) ; 알에 조금의 물기라도 있어서는 쇳물을 받아들



[사진 7]



[사진 8]



[그림 3]

일 수 없기 때문에 알은 불에 잘 달구어져야 한다. 알의 순서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3~4줄로 열병하듯 줄줄이 세워 놓은 그 사이에 덧가지와 장작을 가득 넣는다. 다시 그 위에다 발벼 짚을 수북이 쌓아서 불 붙여두는데, 그때야 재가 사그러지지 않아 열의 방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벵질 재는 차후에 쇧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쇧물 위에 덮는 방열재료(마물)로도 쓰이게 된다.

④ 땡이손질

보습땡이에다 쇧물을 붓기에 앞서 막바지 작업들이 행해져야 하는데, 그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땡이 밀기 (사진 9 참조); '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습땡이의 표면을 밀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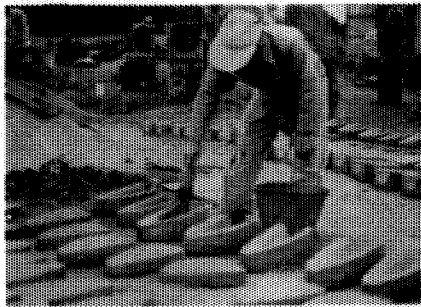


[사진 10]

어 주는 일이다. 이는 텡이 내부 표면에 낀 때를 밀어내어 보습의 표면까지도 일정하고 매끄럽게 주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㉞ 텡이 자심(사진 10 참조); 이긴 白土를 가지고 텡이 표면이 헐리워졌거나 굵이 간 부분을 메꿔주고 나서 '비알'²⁴⁾에 물을 적셔 쓸어주는데, 이를 '텡이 자심다'고 한다.

㉟ 질떡 칠하기(사진 11 참조); 쇧물이 텡이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흑연 가루²⁵⁾를 물에 타서 '비알'로 칠하는 일이다. 이 일은 질떡대장



[사진 11]



[사진 12]

24) '비알'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죽석에서 짚을 휘감아 묶어서 풀비처럼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가성소오다를 물에 풀어 놓아 끓는 물에 비질을 2시간 정도 담궜다가 꺼내어 풀비처럼 만든 것(제주대 민속박물관 유물번호 1354-46)이다. 전자는 주로 '텡이 자심'에서 쓰이고, 후자는 '질떡칠하기'에서 쓰인다.

25) 흑연가루를 손쉽게 구할 수 없었던 지난 날에는 숯을 연자마 등에서 간 후, 체로 쳐낸 가루를 '질떡'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흑연가루 대신 쓰었다고 한다.

(질척쭙)이 맡는데, 흑연 가루를 너무 진하게 타서 딱딱하여 보습의 날이 서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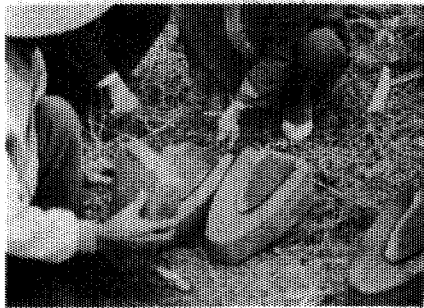
㉔ 땀이 세워 불에 찌기(사진 12 참조) ; 사진 12처럼 보습땀이를 맞세워 놓고 그 밑에 지푸라기를 깔아 불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땀이를 건조시킨다.

㉕ 보 놓음(사진 13 참조) ; 달궈 낸 '알'을 그 순서가 어긋나지 않게 여러 땀이에 옮겨 넣은 후, 알대장이 알 위에 '보'를 놓아가면, 따라오는 잡일꾼은 옷땀이를 덮어간다.

'보'란 점흙을 이긴 흙덩이에서 강낭콩만큼씩 떼어낸 것인데, 알과 옷땀이 사이의 틈을 유지시켜 쇧물의 두께가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도록 받쳐 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를 놓는 대로 옷땀이를 덮음으로써 보습땀이에다 쇧물을 부어넣을 수 있는 마지막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알의 위치를 잘 잡아 줘야 한다. 그리고, 보습땀이 내부에 있는 먼지까지도 입으로 불어 날려 버린다.

㉖ 에우겏흙 바르기(사진 14 참조) ; 점흙에다 까끄라기를 넣어 이긴 흙덩이(에우겏흙)를 갖고 우, 알땀이가 맞물린 틈을 에워붙여 우, 알땀이를 고정시키고, 그 틈으로 쇧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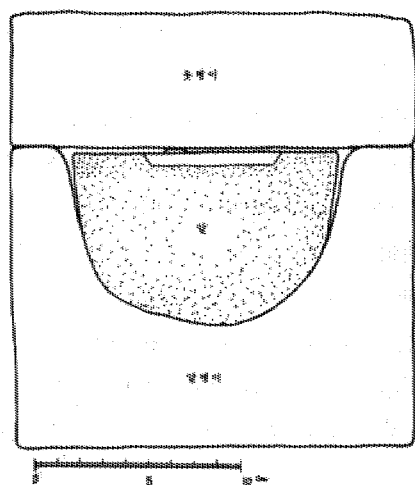


[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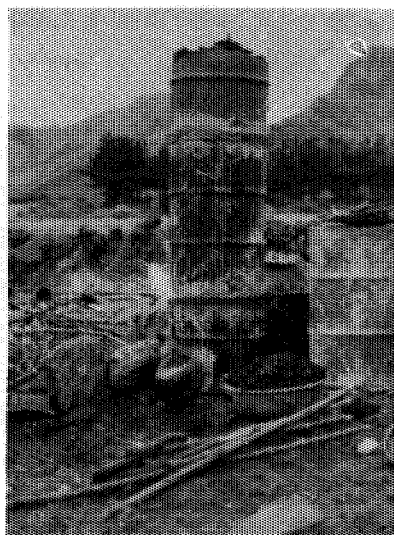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림 4>와 같이 무심구멍으로 쇧물을 부을 수 있기까지의 완전한 작업이 끝난 셈이다.

⑤ 쇧물 붓기

㉗ 독 만들기(사진 15 참조) ; 무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독'이라고 한다. 독



[그림 4]



[사진 15]

을 만드는 일은 독대장이 맡기 마련인데, 아침부터 독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여
계시간에 완성시켜야 한다.

독은 '알독' · '셋독' · '웃독' 으로 구분되는데, 제작기 따로 만들고 나서 나
중에 이어붙이게 되어 있다.

알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럼통을 50cm쯤 높이로 잘라내고 두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맨 밑 어느 위치에서건 지름 3~4cm 정도의 구멍과, 그 구멍의
옆구리 5~6cm 상단에 지름 10cm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전자가 쇳물을 빼낼
수 있는 '잔치고냥' 이고, 후자가 잡꺼끼기들을 빼내 버릴 수 있는 '청록고냥'
이다. 두 구멍의 위치가 5~6cm 정도 차이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잔치고냥으로
나오게 될 쇳물은 자연 무거워서 밑에 깔리게 되고, 청록고냥으로 나오게 될
잡꺼끼기들은 가벼워 위에 뜨기 때문이다.

드럼통 밑으로는 5~7mm 정도로 황톳물에 익반죽한 모래를 깔아줘야 한다.
이 모래를 '자렛몰래' 라고 하는데, 쇳물이 밑바닥에 고일 경우 쇳물이 독 밑으
로 파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는 드럼통 양면을 잘라내 버린 후, 어느 한쪽 밑에서부터 8cm 정

도되는 높이에 지름 15cm 정도의 구멍을 내고, 알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내화벽돌 95 장을 붙인다. 이 구멍을 ‘골끝고냥’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으로 바람을 집어넣을 뿐 아니라 자주 쳐다보면서 무쇠가 제대로 녹아서 떨어지는지의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골끝 본다’, ‘뒤 본다’고 한다.

이 두 개의 둑을 합친 높이는 145cm, 다시 이 위에다 내화벽돌을 붙이지 않은 45cm 높이의 드림통을 그대로 얹어 놓으면, 총 185cm의 둑이 완성된다.

완성된 둑으로부터 쇳물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이긴 점흙으로 ‘진치’, ‘더버지’라고 하는 쇳물받이를 만들고, 그 위에 질먹을 칠한다.

㉔ 무쇠 녹이기 ; 둑이 완성되고 나면, 그 안에 장작을 계속 집어넣으며 2시간 정도 불을 때 준다. 이 때의 장작을 ‘둑냥’이라고 하는데, 둑냥을 땀으로써 둑 내부의 습기를 서서히 제거시킬 뿐 아니라, 무쇠를 녹이는 데 주원료인 콕스에 불을 당겨 주게 된다.²⁶⁾

우선 삼태기 하나 정도의 콕스를 둑에 부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풍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손풀무(토불미)나 골풀무(청탁불미)로 노래까지 곁들여가며 손이나 발로 바람을 일으켰었으나, 오늘날에는 경운기 엔진의 힘으로 풍구(마돌기)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데, 풍구에서 일어난 바람은 바람길이라고 할 수 있는 ‘구래’²⁷⁾를 통하여 ‘골끝’으로 들어간다.

콕스에 완전히 불이 붙었다고 생각되면, 무쇠를 다 녹일 때까지 그 위에 삼태기 하나 정도의 무쇠와 콕스를 번갈아 놓아가며 둑 가득히 항상 채워나간다. 보통 20여 분이 지나서 잔치고냥으론 쇳물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당조직의 성원들은 각자 여러 가지의 도구와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알대장은 쇳물을 뽑아내고 난 후, 쇳물을 잠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점흙에 보리 까끄라기를 놓아 이겨 만든 ‘물막잇흙’과 그 흙덩이를 막대 끝에 붙여 잔치구멍을 막는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물막이’(사진 16 참조)와 일시적으로 막혔던 구멍을 쭈서 쇳물을 뽑기 위한 130여cm의 막대(무드리)와 곡괭이, 젓대장들이 ‘오시상태’에 쇳물을 담아 운반할 때마다 쇳물 위에 재를 덮어 줌으로써

26) ‘콕스’를 구할 수 없었던 지난 날에는 참나무 숯으로 무쇠를 녹였었다고 한다.

27) 함석 판으로 지름 20cm 정도의 굵기로 둥그렇게 만든 등.



[사진 16]

열의 방출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마' 재 등을 준비하여 잔치구멍 앞에서 대기한다.

독대장은 무쇠와 콧스가 녹아내리는 대로 그것을 계속 채워나갈 뿐 아니라, 불 붙지 않는 콧스 등을 꺼내 버리기 위한 '독집계'²⁸⁾ 간간이 청록구멍을 뚫어 쇠물 위에 뜬 잠저꺼기 등을 빼어내 버리기 위한 목쟁이를 준비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독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젓대장들은 쇠물을 길어나르는 그릇인 '오시장태'²⁹⁾와 그것을 들어 운반할 수 있게 질과 철사를 갖고 8부 형으로 만든 '볼레'³⁰⁾를 준비하여 잔치구멍 앞에 대기한다.

원대장은 쇠물이 탕이 속으로 부어질 경우 알이 움직이지 않게 눌러주기 위한 '무드리'와 비슷한 막대 두 개를 준비하여 탕이 옆에서 대기한다.

일꾼 네 사람은 탕이를 일으켜세워 젓대장들이 쇠물을 쉽게 부을 수 있게 받

28) 濟州大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366-46.

29) 쇠물을 길어나르는 그릇이다. 철판으로 큰 화분처럼 모양을 뜬 후, 그 안에 이긴 점철을 두텁게 발라서 5시간 정도 불에 달궈내어 질게 '질떡'을 칠한다.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346-46).

30) 濟州大 民俗博物館 유물번호 1351-46.

쳐주는 끈(땡잇배)을 준비하고 원대장과 함께 텡이 옆에서 대기한다.

㊸ 쇧물 붓기 ; 잔치구멍으로부터 쇧물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알대장은 '물막이'에 '물막잇흙'을 붙여 구멍을 꼭 틀어막아 버린다. 2~3분이 지나서 독 밑바닥에 쇧물이 고였을 것이라고 생각될 즈음에 '무드리'나 곡괭이로 좀 전에 막아뿔던 물막잇흙을 뿔어 일정한 양의 쇧물을 뽑아두고 다시 물막잇흙으로 틀어막아 버린다(사진 16 참조).

한 사람의 췌대장은 오시장태를 들고 잔치구멍 밑에 대기해 있다가 텡이 7~8개에 부을 양의 쇧물을 받고 나서 옆에 준비해 둔 '마물' 재를 쇧물 위에 덮어 텡이 앞으로 간다.

잡일꾼들은 '땡잇배'를 텡이 뒷부분을 눌러 반쯤 일으켜 세워(땡이세움) 췌대장들이 쇧물을 쉽게 부을 수 있게 받쳐 세우고, 원대장은 두 개의 막대를 양손에 나눠 들고 알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알짚음), 췌대장은 오시장태에 들고 온 쇧물을 '무심' 구멍으로 붓는다(사진 17 참조).



[사진 17]



[사진 18]

쇧물은 무심으로 들어가서 텡이 안에 별경게 번져 1시간 후면 완전 굳어 보습의 형을 이루게 된다. 이때 알이 짧아 텡이의 크기에 맞지 않던가 텡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쇧물이 텡이 안에 고루 번지질 못해서 기형적으로 굳어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장(꽃) 뿔다' 고 한다.

알대장이 잔치구멍을 뿔고 막는 일, 췌대장들이 서로 교대해가며 쇧물을 나르는 일, 잡일꾼들이 텡이를 세우는 일, 원대장이 알 짚는 일들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다.

㉔ 보습내기 ; 불미마당 가득 준비하게 늘어 놓은 보습덩이들마다 쇧물을 붓고 나서 1시간 후에는 보습을 꺼내야 한다. 에우겏흙을 애써 떼어낼 필요없이 옷덩이만 살짝 치워 버리고 보습을 꺼내어 한 데 모아 놓는다. 모아 놓고 보면, 자연 보습의 핵 밖으로 흘러간 쇧물 자국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능살’이라고 한다.

대개 여럿이 모여 앉아 망치로 두드리며 능살을 떼어내 버리면 (사진 18 참조) 하루의 불미마당 작업이 끝남과 함께 완전한 ‘새당보습’도 주조된 셈이다.

V. 마 무 리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전승되어 온 보습의 주조과정을 현장론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아울러 제주도 풀무질에 관한 간단한 연혁과 제주도 보습의 풍토적 상관성까지도 살펴 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의 풀무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농경 발달 과정과 함께 손의 힘을 이용한 ‘뚝뚝불미’ 형태의 풀무질에서 ‘토불미’, 그리고 발의 힘을 이용한 골풀무(청탁불미) 형태로 이어오다가 오늘날에는 동력을 이용한 골풀무 형태로 이어져 왔다.

2. 제주도의 토질은 화산의 영향으로 節理層을 이룬 火山灰土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밭을 일구기가 매우 至難하고, 여름에 高溫多濕한 관계로 「잡초와의 투쟁」이 연일이라 제주도의 보습 또한 이 지역의 풍토적 악조건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하여 주조된 농경구의 하나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농경구들은 보습뿐만 아니라 팽이·따비·호미까지도 그 날이 협소하고 날렵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제주도의 풀무질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도구를 만드는 한 수단으로 이어져 온 基層文化의 하나이나 이렇다 할 조사·연구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전승자들이 생존해 있기에 벼과 솔까지도 그 주조과정을 재현하도록 하고, 이를 현장론적으로 정리하여 제주도 기층문화의 일면을 톺고 다졌으면 하는 바램이다.